

은행 '모바일 플랫폼 차별화' 전쟁

증강현실 더하고 해외시장 공략도... 금융계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찾아야"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계기로 국내 주요 은행들이 모바일 플랫폼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이 플랫폼 서비스로 탈바꿈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인터넷 전문은행에 고객을 뺏길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및 금융 지주회사들이 '플랫폼 차별화'를 경영목표로 모바일 시장 경쟁에 전투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모바일뱅킹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을 내세워 차별화된 플랫폼 전략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고자 메신저 기능, 결제, 송금, 금융상담, 소상공인 직거래 가능한 위비마켓까지 위비톡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난달 기준 320만명(외국인 가입자 수 11만명)이 가입한 위비톡은 개인 고객을 넘어 기업의 무료 사내 메신저 서비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진출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다. 구글 번역기가 도입된 위비톡 자동번역 서비스를 도입, 국내에 있는 해외 근로자나 현지에서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들이 위비톡을 이용해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의 접점을 5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5년 금융권 최초로 멤버십(통합 포인트) 서비스를 내놓은 KEB하나금융은 증강현실 서비스(하나머니 고)를 탑재해 멤버십 시장 굳히기에 들어갔다.

하나멤버스 "홀어저 있는 포인트를 모아 현금처럼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로 금융 소비자를 유혹해 1년 동안 800만명에 가까운 고객이 가입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40년 만에 문 닫는 한진해운

1977년 설립된 한진해운이 40년 역사를 뒤로 하고 지난 17일 결국 파산했다.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린 이날 오후 부산신항만 한진해운터미널에서 한 직원이 컨테이너 모양의 홍보관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올해는 '포켓몬 고'와 같이 스마트폰의 위치검색 기능에 기반을 둔 증강현실을 제공한다. 하나금융 계열사 영업점 근처에서 '하나머니 고'를 실행하면 하나금융이 제공하는 다양한 쿠폰들을 잡을 수 있는 가상게임이 벌어지는 식이다.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다.

신한금융과 KB금융 또한 모바일 플랫폼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신한금융은 계열사 간 연결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워진 '신한 판클럽'은 별도의 인증 없이 은행과 카드,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그룹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을 통합했다. 여기에 고객 및 통합 거래 정보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적용하고 그룹의 우수 고객 제도인 '답스클럽' 서비스도 추가했다.

모바일 플랫폼 경쟁에 한발 늦게 뛰어난 KB금융그룹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주력한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리브메이트'는 금융·통신 융합 플랫폼으로 포인트 기반의 커뮤니티 금융, 소비지출 관리, 제휴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인트 활용 편의성이 높은 게 강점이다. 교환의 경우 금융거래로 모은 포인트와 신세계물·항공사 마일리지 포인트, 페이코(PAYCO) 포인트 등과 교환할 수 있다.

시니어 고객에 특화된 서비스도 눈에 띈다. 골드라이프 뱅킹은 이용도

높은 조회·이체 메뉴를 전면 배치하고 화면 글씨체를 확대하는 등 시니어 맞춤형 모바일 환경을 구성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많은 금융회사가 모바일 플랫폼을 내놓았지만 서비스가 특색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올해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출범해 대부분의 금융주 회사들이 플랫폼 차별화와 디지털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 연구실장은 "모바일 뱅킹은 이용규모가 빠르게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조회 업무, 단순거래에 그치고 있다"며 "은행들이 고객 접점과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통합 '카카오TV' 출범

'다음tv팟' 과 플랫폼 통합... '라이브 방송 예정'

카카오는 '다음tv팟' 과 플랫폼을 통합한 '카카오TV'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통합을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TV를 PC와 모바일,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을 아우르는 통합 동영상 플랫폼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새로운 카카오TV는 기존 두 서비스의 콘텐츠 리소스와 플랫폼 경쟁력을 하나로 모았다. 월간 이용자(MAU) 4200만 명을 보유한 카카오톡과 2600만 명의 카카오톡 채널, 2700만의 포털 다음이 모두 동영상 유통하고 감상하는 공간이 된다.

카카오TV는 카카오톡의 새로운 플러스 친구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여타 동영상 서비스들과 차별화된다.

이용자는 카카오톡에서 동영상 채널을 플러스친구로 추가하면 간편하게 해당 채널의 라이브 방송과 업데이트된 영상을 카카오톡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카카오TV 라이브' 앱은 라이브 콘텐츠를 모바일에 최적화된 UI로 제공하며, 실시간 채팅과 후원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뉴시스

카카오TV에는 대도서관, 음덱, 도티, 잡플, 밴즈, 허랍, 김이브, 디바제시카, 이사배, 조섭, 유준호, 안재익, 소프, 울산근고래 등 국내 정상급 크리에이터들이 카카오TV PD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박성광, 박영진, 정태호 등 개그맨들이 주축이 된 개러방(개그맨들의 라이브 방송국)도 카카오TV에 참여한다.

카카오는 누구나 라이브 방송을 생산하고 창작자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개인 PD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책도 단계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카카오TV에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모바일 개인방송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카카오 동영상플랫폼팀 배동호 이사는 "카카오TV는 해외 동영상 플랫폼에 편중된 동영상 서비스의 균형을 되찾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기존 tv팟에 영상이나 캐쉬를 보유한 이용자들은 카카오 계정 연동 후 이관 신청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영상과 충전 금액을 카카오TV로 옮겨올 수 있다. /뉴시스

이재용 구속... 외환·채권시장 큰 동요 없어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국내 경제 이슈로 떠올랐지만 국내 외환·채권 시장은 큰 동요 없이 장을 마감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채권 금리가 하락했지만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41.5원)보다 0.2원 오른 1141.7원으로 출발했다. 개장 이후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

를 보이면서 4.8원 오른 1146.3원에 마감했다.

전날 1000원대를 회복했던 원·엔 환율은 개장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오후 3시30분 현재 1011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등 원화 약세 요인이 있었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는 평가다.

정성원 현대선물 연구원은 "국민연

금이 달러 매수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왔고 어제 경제부총리의 구두개입성 발언도 있어서 달러 강세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증시도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낙폭을 꾸준히 줄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구속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채권 금리도 소폭 하락했지만 삼성 관련 이슈보다는 전날 미국 채권시장

달러 강세·채권금리 하락 변동폭은 크지 않아

의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다.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1bp(1bp=0.01%) 하락한 1.655%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0.3bp 내린 1.847%에 장을 마감했다. 10년물(2.135%, -0.9bp), 20년물(2.183%, -0.2bp), 30년물(2.189%, -0.4bp) 등 장기물 금리도 소폭 하락했다. /뉴시스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재확인

'해외이전 기업에 큰 페널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공기 제작사 보잉을 방문해 제조업 분야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재확인했다. CNN방송의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린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보잉 787-10 드림라이너' 출시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미국에서, 미국인의 손으로 제작된 상품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미 미국의 제조업이 요란하게 돌아오고 있다(Already, American industry is roaring back)"라면서 "일지러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요한 이유다. 오는 여기 있는 여러분의 대통령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어달라"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을 하는 게 훨씬 쉬워야 한다. 제조업체가 미국을 떠나는 일은 훨씬 어려워야 한다. 나는 기업들이 우리를 떠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들이 사람들을 해고한 뒤 다른 나라로 옮길 경우 아주 실질적인 페널티를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아주 강한 무역 규정을 통해 외국의 부정행위를 막도록 할 것(stop foreign cheating)"이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이 환율 조정을 통해 부당한 무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보잉에게) 대규모 주문을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F-18 슈퍼호넷을 주문하겠다는 의중을 다시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2월 23일 트위터 통해 록히드마틴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생산단가가 너무 비싸다면서 이를 보잉사의 F-18 슈퍼호넷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